

상급평의회 소식

곤칠리움 소식입니다.

433차 회의록과 종합보고서를 보내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는 여러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과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랭크 더프의 예수성심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셨는데 그가 말년에 침대 맞은 편에 예수 성심화를 걸어놓고 보면서 지낸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프는 많은 가정들이 예수성심에 봉헌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으며, 교본에 나와 있듯이 가정에 예수 성심상을 모시는 신심을 전파하는 것을 레지오의 값진 활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주일은 프랭크 더프의 탄생일이어서 곤칠리움에서는 그가 묻힌 그라스네빈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미사는 봉헌하지 않았지만 (미사는 그의 기일인 11월에 함) 레지오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더프의 가까운 친구이며 더프가 선종할 때 곤칠리움 단장이었던 엔다 던리비가 아름다운 추모사를 했습니다. 엔다는 더프를 가리켜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묘지의 성당에서 그의 무덤까지 행진을 하였는데 참석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탄생일 일주일 전에는 더블린의 꾸리아가 있는 성당에서 주임신부님의 주관으로 더프를 기념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본당사목회관에서 프랭크 더프와 레지오에 관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의 전기를 저술한 피놀라 케네디가 강연을 했고 이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강연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프랭크 더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서울 세나투스 간부들과 평의원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곤칠리움 서기 패트릭 웨이